성전 건축을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봉헌

이번 주 묵주기도 중 기억할 분들 (11월 30일 ~ 12월 6일)

월	이용완 헬레나, 김학선 레오, 홍인선 콘체타, 김경중 그리산도, 이어진 로사, 한민희 베드로, 오은영 루치아, 김영자 린다, 서유정 베로니카, 이서연 에스텔, 곽기숙, 김수화 유스티나, 강태현 미카엘, 우나미 효주아녜스, 김은아 레지나
화	강승엽 루카, 박진용 요셉, 박준하 다니엘, 장영옥 마르티나, 권재중 마리아, 조경희, 이준혁 안드레아, 김지선 바울라, 장미진 엘리사벳, 김종숙 실비아, 우정란 말가리다, 박옥란 율리아, 이수정 크리스티나, 이현수 유스티노, 함세현 프란치스코
수	신명우 사도요한, 윤이원 벨라뎃다, 김정미 베로니카, 김경애 스텔라, 채홍찬 안드레아, 김채연 로사, 김수아 라이넬다, 전용진 바오로, 최영철 다니엘, 한성근 대건안드레아, 김도희 아녜스, 김대현 요한, 차명건 요셉, 송 가브리엘라, 권용순 엘리사벳
목	김소희 아셀라, 이영옥 체칠리아, 라혜정 아녜스, 김병주 체칠리아, 이윤희 소화데레사, 강새별 카타리나, 김승환 베네딕도, 이상협 요셉, 김은국 스테파노, 한명숙 모니카, 홍유심 안나, 이준호 베드로, 김경자 막달레나, 이태순 데레사, 류연수 플로라
금	배경수 도미니코, 엄재숙 수산나, 오은주 세라피나, 김학수 프란치스코사베리오, 이수진 마리아, 이연자 안나, 정상민 임마누엘, 조근 세례자요한, 서정우, 정현윤 글라라, 장래옥 루치아, 김유미 엘리사벳, 한은정 안젤라, 구혜경 베로니카, 신민철 미카엘
토	정명순 율리아, 이영진 바오로, 장민 스테파노, 윤효정 마리아, 김민주 루치아, 김성운 요한보스코, 송민경 크레센시아, 김규리 일루미나, 이진욱 안드레아, 박주경 젤마노, 오채연 연희마리아, 한은정 린다, 류재현 스테파노, 선민지 글라라, 구주미 마리아
주일	이은주 젬마, 최경희 아녜스, 한창길 바오로, 김정순 안젤라, 이경우 대건안드레아, 서병옥 엘리사벳, 이유숙 안젤라, 손호정 요한, 장우영 안젤라, 김진호 시지스문도, 김상도 도미니코, 홍정희 글라라, 김효진 체칠리아, 응웬티뀐누 안나, 이연철 토마스

레지오 훈화 3-2. 성모 공경을 드러내는 기도와 성월 - 삼종기도

삼종 기도는 하루 세 번, 아침, 점심, 저녁에 드리는 기도로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께 드린 인사(루카 1,28 참조)를 기억하면서 강생의 신비를 묵상하는 기도이다. 이 기도는 중세 시대 이후 그리스도인들에게 생활과 가장 밀접한 기도로 자리 잡았다. 하루 세 번 성당에서 울리는 종소리는 신자들의 하루 생활 리듬을 이끌어 주었다. 13세기 피사의 프란치스코 수도원은 신자들이 성모송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루 세 번 종을 울렸다. 이러한 영향이 유럽 여러 지역에 미쳤다. 1318년 요한 22세 교황께서는 저녁 종이 울릴 때 세 번의 성모송을 외우는 신자들에게 은사를 베푸셨다. 15세기에는 아침에 세 번 성모송을 하도록 종을 울렸고, 16-17세기에는 한낮에도 바치도록 하였다. 1724년 베네딕토 13세 교황께서는 은사를 베푸시면서 종이 울리면 무릎을 꿇고 삼종 기도를 바칠 것을 권고하셨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비오 12세 교황께서는, 모든 신자가 삼종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당의 종을 하루에 세 번 타종하게 하셨던 갈리스토 3세 교황의 회칙(1456년)을 상기시키시며, 삼종 기도를 강조하셨다. 그리고 몸소 로마 성지 순례자들과 함께 한낮에 삼종 기도를 바치셨다.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후임 교황들께서도 로마를 찾는 순례자들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 바티칸 광장에서 삼종기도를 함께 바치시고 교황 강복을 베푸신다.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올바른 성모신심, 28-29쪽>

성산 갈바리아의 성십자가 성당
SEONGSAN CATHOLIC CHURCH
대림 제1주일
2026.11.29 | 별지 제188호

“정부는 낙태약 도입 추진을 중단하고, 생명 존중과 여성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지난 9월 16일,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한 낙태약(미프진 등)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의약품의 안전성 검토, 사후 의료관리 체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되고 있음에 우리는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최소한의 기반도 갖추지 않은 채 도입부터 서두르는 것은 태아의 생명권뿐 아니라 여성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졸속 행정입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다음 네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 낙태약은 여성에게 안전합니까?

의료 현장은 낙태약이 응급피임약처럼 단순한 약물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복용 후 심한 출혈과 통증이 따르며, 응급 수술(자궁내용물 제거술)이 필요한 사례도 빈번합니다. 실제로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도 약물을 사용한 74명 중 53명이 낙태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추가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낙태약을 허가한 미국에서조차 그 위험성을 재조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낙태약은 ‘간단히 낙태하는 약’으로 왜곡되어 알려지고 있으며, 정부는 도입 초기 2년이 지나면 일반 조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놓았습니다. 정부에 묻습니다. 임신 주수와 금기사항 확인, 이상반응 발생 시 대응, 응급진료 연계, 낙태 완료 여부 확인 등 구체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특히 심야 시간대에 발생하는 다량 출혈이나 극심한 통증 등 응급상황에 대응할 24시간 공적 상담과 의료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는 관리체계만 갖추면 도입해도 무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처럼 가장 기초적인 안전성에 대한 물음에조차 답하지 못한 채 도입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의 무책임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준비 없는 도입의 결과로 사후관리의 책임은 일선 병·의원과 의료진에게 전가되고,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위험은 고스란히 여성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둘째, 법과 제도의 정비보다 낙태약 도입이 우선되어야 합니까?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죄 조항은 2021년부터 효력을 잃었지만, 이를 대신할 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스스로 입법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법적 기준조차 없는데 약물부터 도입하겠다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국가의 태도입니까? 사단법인 프로라이프는 미프지미소 품목허가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개질의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식약처는 9월 15일 관계 부처가 논의 중이라고 답변했으나, 정부는 바로 다음 날 구체적인 낙태약 도입 방안을 기습 발표했습니다. 또한 식약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품목허가 심사자료는 업체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약품이라면 허가 심사의 기준과 근거, 법적 쟁점과 안전관리 대책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마땅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중대한 문제를 기업의 영업비밀 뒤에 숨겨서는 안 됩니다.

셋째, 준비되지 못한 임신에 대한 해법이 낙태약입니까?

낙태약을 도입한다고 해서 위기임신 여성이 겪는 주거 불안,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간 갈등, 양육 부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낙태 절차를 간편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여성은 선택지가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가장 빠른 길 하나로 내몰리게 됩니다. 여성은 파트너와 가족, 사회로부터 “간단히 약 먹고 끝내라.” 는 무언의 압박에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낙태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임신 여성이 충분한 상담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숙고할 수 있도록 돕고, 임신·출산·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거·경제·돌봄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기임신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낙태약이 아니라, 생명을 함께 책임지는 국가의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넷째, 태아의 생명은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아닙니까?

태아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모체와는 구별되는 고유한 DNA를 지닌 독립된 생명체이며, 태내에서 계속 성장하는 인간입니다.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신 9주 이하의 태아 역시 마땅히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생명입니다. 설령 약물의 안전성이 담보되고 의료체계가 완비된다 할지라도, 낙태약이 태아의 생명을 끝내는 약물이라는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약은 생명을 살리는 데 그 목적이 있지만, 낙태약은 생명을 살리는 약이 아닙니다. 낙태약이 도입되면 태아의 생명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쉽게 사라질 위험에 놓입니다. 정부는 낙태약 관리 방안을 논하기에 앞서, 국가가 수호해야 할 존귀한 생명이 존재한다는 사실부터 직시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정부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태아의 생명을 앗아가는 낙태약 도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 정부는 의약품 허가의 법적 근거와 심사 기준, 안전성 자료 및 사후관리 대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한 검증을 보장하라.

3. 정부는 위기임신 여성이 임신·출산·양육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적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과 태아의 생명과 건강을 함께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

4. 정부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우리 헌법 정신에 기반하여 태아와 여성을 모두 보호하는 대체 입법을 지체 없이 추진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 보호는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대응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 원칙은 낙태약 도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9주 제한' , '원내 처방·조제' , '향후 법·제도 정비' 라는 조건을 붙인다고 해서 낙태약이 태아의 생명을 앗아가는 약물이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위기임신 여성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책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정책은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여성과 태아, 어느 한쪽의 생명과 안전도 정책적 고려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 중인 낙태약 도입을 즉각 멈추고, 위기임신 여성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태아의 생명 보호를 중심에 둔 책임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6년 10월 31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 생명운동본부 생명운동연합 사단법인 프로라이프

성전 건축 기금 현황 2026년 11월 27일 기준

구 분			이번 주	2026년 누계
수입	우리 본당	교무금 납부시 건축기금	260,000	13,335,000
		약정 기부	3,250,000	177,790,000
		2차 헌금		12,101,950
		기타 수입	3,490,000	31,207,463
	외부 모금	타본당 모금	114,794,570	526,200,936
		매일미사	9,140,390	154,360,510
		평화방송	11,004,713	339,296,922
		가톨릭 평화 신문	702,000	25,876,500
		가톨릭 신문	1,970,000	75,580,000
		ARS 후원		12,132,470
		기타 후원	2,813,000	25,863,000
	합 계		**147,424,703**	**1,393,744,751**
지출	건축	설계비		36,041,570
		건축 준비비		14,930,000
	모금 홍보	광고비		95,251,200
		모금 준비비	131,900	15,217,900
		봉사자 지원비	1,350,000	5,716,160
	합 계		**1,481,900**	**167,156,830**
현 잔액			**1,893,435,837**	

본당 약정기부 약정기부 148세대 196,220,000원 중 177,790,000원 납부 (납부율 90.60%) 박인옥, 최정화, 이원석, 정현희, 이천희, 사정애, 정동주, 박광열, 소옥선, 이명희, 류제홍, 김준희, 김정의, 문경숙, 지필예

타본당 모금

스무숲성당 220,000원 박성선, 최형규, 백혜원, 박찬애, 이명숙, 윤창섭, 김재숙
죽림동성당 335,000원 김상희, 황금옥, 배혜연, 엄명자, 송한주, 김자운, 김경희, 손문자, 손명자
교동성당 270,000원 신미선, 박주현, 이남순, 김춘자, 김영란, 김영진, 황상숙
철원성당 400,000원 김은숙, 이용완 **퇴계성당 750,000원** 김문희, 김정자, 김학선, 박찬현, 홍인선, 황호중, 김영현, 한정연, 김경중, 김경준, 조길환, 허명옥 **응암동성당 260,000원** 이어진, 박시원, 한민희, 오은영, 방미정, 김영자, 서유정, 서정범, 김옥선, 이서연, 김보경, 김효순, 김석원, 이인희, 김수화
대방동성당 4,010,000원 최유지, 백보경, 김슬기, 임계선, 안승훈, 안유진, 안성민, 노정현, 강성렬, 이형근, 심인보, 송정숙, 김영옥, 황치후, 백승채, 이현정, 박숙희, 송현숙, 박통일, 김수정, 이옥화, 강기완, 이명주, 이옥화, 문현주, 권병연, 서성자, 류만섭, 박레나, 최승민, 조창선 **싱가포르한인성당 105,182,000원** 임혜리, 한영주, 김영, 박나영, 김우태, 김민선, 윤준호, 서은희, 손현채, 김수성, 장진아, 정모은, 박광호, 이지현, 서은희, 배세원, 한민정, 최진수, 손현채, 윤나희, 최인영, 유상미, 박효진, 박은숙, 박준수, 정수연, 오세윤, 이영신, 양준영, 안수빈, 변성재, 안상민, 우승민, 류도희, 박미옥, 심대용, 남기설, 유성진, 김준, 김승만, 김태영, 김철진, 박진영, 박춘필, 오석남, 김야림, 이지윤, 유원준, 권화자, 김병구, 심현광, 이성민, 황현철, 이준상, 김주원, 목정숙, 최경원, 송금자, 이혜숙, 장홍조, 유영희, 하유미, 백순건, 문경훈, 김희영, 김영희, 에이치피오, 이정륜, 정은혜, 최수, 석승현, 박하철, 남혜영, 김현진, 오민경, 이선민, 김현우, 이임한, 조원, 이규리, 박인혜, 임대군, 박철, 이수아, 성수현, 노일선, 김원기, 송종희, 전연경, 이지현, 박경원, 최문기, 장현진, 김한종, 김현길, 홍성미, 유정선, 김건영, 강안나, 박성운, 남궁준, 김준용, 김주호, 이지율, 권명희, 김경숙, 김정훈 **2차헌금 2,967,600원**

매일미사 김태희, 송세인, 안해화, 이병근, 오영규, 나경민, 김경두, 이선용, 이영숙, 고정순, 국형재, 최영희, 신명철, 이미옥, 안숙자, 김상윤, 최재향, 김혜원, 김성은 최아름, 김채희, 서동자, 이경희, 신형범, 김영혜

평화방송 양길자, 유근옥, 이영임, 최여진, 이숙의, 김인영, 김옥심, 정영모, 이은용, 안윤솔, 권경숙, 김잠숙, 이재옥, 강윤성, 신정자, 정말임, 홍영애, 박진희, 신유찬, 이상필, 강정옥, 최우식, 우화숙, 백종옥, 이순옥, 이채순, 한봉남, 홍춘자, 양풍금, 박병순, 이양호, 김구용, 서복례, 김윤숙, 박준엽, 김용일, 최선예, 한윤경, 하정우, 김경화, 이종현, 조재연, 이명숙, 정보혜, 배성철, 박순옥, 서숙덕, 김신석, 구미대자

가톨릭신문 고경자, 권혁란, 이정자, 김신영, 김건화, 박훈용, 황이선, 최중실, 홍덕희, 최양자, 하정옥, 김석구, 박종운

가톨릭 평화 신문 김준현, 임성현, 김태희, 장근숙, 김익현, 김광섭, 여현미, 한민지

기타후원 이현숙, 배노미, 박현숙, 장세준, 손영미, 사영애, 사영구

지출 모금 준비비 모금폰 요금, ARS 이용료 **봉사자 지원비** 사무장 추가수당

우리들의 정성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주일 헌금	937,000	주일헌금(송정)	182,000	교무금	860,000
양성, 복지, 원로	50,000	미래 기금	90,000	감사헌금	

교무금 김주하, 박영수, 이효순, 김석기, 김종녀, 이원일, 강인식, 안남선, 송기준, 서금자, 이영대, 유옥순, 최정화, 최용범, 장혜분, 김남수, 김정자, 함연하

미사 참례 현황 총 신자 717명 중 주일미사 179명 참례 / 참례율 : 24.97%

평일미사	토 (11/21)	월 (11/23)	화 (11/24) 내촌 / 본당	수 (11/25) 본당 / 송정	목 (11/26) 장례 / 송정 / 본당	금 (11/27)
	14명	14명	12명 / 25명	18명 / 37명	52명 / 18명 / 23명	12명
주일미사 (11/22)	내촌공소	토요일 저녁	두촌공소	송정공소	교중미사	철정공소
	21명	25명	20명	26명	65명	22명